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학생 교육원, 애국·국가혼 심는 장으로



정 옥 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959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당시 나는 서울의 동덕여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회장 후보로 대대장 후보와 함께 왕십리에 있던 무학여고에서 간부 학도훈련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여고에서 학생 두 명씩을 선발하여 장미반과 백합반으로 분반, 속식 시키며 집중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간부로서의 자질함양이 목표라고 했는데 교과과정은 다양하였다. 당대의 저명인사들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리더십에 대한 정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에 대한 답론 등은 물론이고 자유 시간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있었고 독서에 수영하러 가기도 하였다. 간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교육은 사고하나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졌고 훈련하는 선생님이나 훈련받는 학생이나 진지하게 짝이 없었다.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어제 일같이 생생하다.

뒤에 회고해보니 이 경험은 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 전까지는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오직 나 하나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나를 넘어선 세계에 눈뜨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해 학생회장이 되어 4·19혁명에 와중에서도, 그 후의 내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시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도 내 청소년들에게 의병정신을 고취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 학교가 위치한 가정리가 바로 조선 말국의 시기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의암 유인석 장군의 사적지이므로, 그곳의 시설들이 의병운동이나 의병정신과 관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암 선생이 어떤 인물인가는 재료를 필요조차 없겠지만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김구 선생이 노구를 이끌고 춘천시 남면 가정리까지 거동하여 의암 선생 묘소에 제의를 행하며 바친 고유문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스스로 백수잔년(白首殘年)이라 자처한 김구 선생은 의암 선생의 절의를 높이 평가

하고 지난 세월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음을 천명하면서 “무한한 심사(心事) 하소하노니 영령은 앞길을 가르치소서”하며 끝을 맺고 있다. 망명지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의암 선생을 찾아 어렵게 광복된 조국이 혼란에 빠져 마음이 산란함을 하소연하고 조국의 앞날을 어찌해야할지 가르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의병정신은 한마디로 애국정신이다. 의병정신의 뿌리는 깊다. 의병운동은 멀리 조선 중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까지 소급되는 외세 배격운동이자 구국운동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민초들이 일어나 구국의 대열에서 목숨 바쳐 싸우는 전통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가다.

향촌사회에서 존경받는 선비가 거의(擧義)하여 의병장이 되고 백성들이 호응하여 의병이 되었다. 1895년 국모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한말 의병들은 1910년 망국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원류가 되었다. 그 의병의 총사령관이 바로 의암 선생이었던 것이다. 춘천에서 가담한 자부심의 원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춘천 가정리에 ‘강원학생교육원’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의도로 보인다. 천 마디

말보다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유적지에서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정리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씩이라도 의병정신을 통한 역사 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는 성지가 되어야 한다. ‘강원학생교육원’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그런데 바로 그 학교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2011년부터 문제 학생의 대안학교로 되었다가 다시 국제대안학교(강원Wee스쿨)가 된다고 한다. 물론 대안학교는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필 ‘강원학생교육원’을 전용할 필요는 없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생교육원’ 본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강원도의 청소년들에게 의병정신을 고취시켜 애국심을 기르고 심성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비단 이런 사례는 강원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학생교육원도 애국과 국가혼을 심어주는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자꾸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교육을 망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의료칼럼



김 수 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덴탈 시티’의 부가가치

력’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론은 유럽 여행가들에게겐 원래 고성(古城)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최근에는 ‘인플란트 도시’로 탈바꿈했다. 소프론이 인플란트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이다. 소프론이 인플란트 도시로 자리 잡게 된 건 상대적으로 비싼 서유럽의 진료비 때문이다. 유럽 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웬만한 치료는 물론 수술까지 국가가 부담하지만 치과 질환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데다 시술 비용이 서유럽 국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짝퉁이어서 최근 소프론에는 각국에서 몰려든 의료 관광객으로 늘 북적거린다.

이러한 소프론과 같이 아시아의 자생적인 의료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도시가 광주이다. 지금은 치과 치료와 주변 관광을 묶은 퓨전 상품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광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치과산업 클러스터 연구차 최근 소프론을 방문했다. 최근 작은 도시인 이 소프론이 ‘도시 경쟁

과 맞는 매우 시기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론에서의 의료 관광처럼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오후에 인근 유적지들을 둘러보고 진료가 없는 날은 무등산 등산, 증심사, 포충사 관람과 도곡 온천욕 등을 하는 것이다. 광주의 뛰어난 의료 인력과 저렴한 물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잘 정비된 관광 인프라가 이곳의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광주는 의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방문지로 기억될 것이다.

GBI Research에 따르면 2009년 69억 달러의 치과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129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인플란트 시장이 16%, 세라믹 크라운·브리지 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 출산율과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인플란트 시장의 확대와 치과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될 추가적인

장비 구입에 따라 치과 의료기기 시장이 높게 성장할 것이라고 GBI Research는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의 진보 또한 치과 장비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때문에 치과 의료기기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추세이다.

또한 치과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 품목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성이 좋은 치과 인플란트는 인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 치과용 진단기기인 x-ray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최근 100년 동안 전 필름 시장을 석권한 코닥의 파산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며, 이를 타산지역으로 삼아 뛰어난 판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광주 및 전남광역을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과 연계해 아시아 덴탈시티! 덴탈메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상상·동반 성장·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고



정 수 택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인권도시 광주와 다문화

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느끼는 진정 어려운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지난 1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인 남편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남편, 딸과 함께 자신의 친정을 방문하였으나, 남편만 귀국시키고, 본인과 딸은 자국에 남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언어, 문화, 연령, 사고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인권 폭력, 이혼 등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지역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이 이곳을 찾아 상담하는 건수가 연간 4000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1100건(26%)이 인권폭력문제라고 한다.

광주는 ‘역사의 고비와 맥락마다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온’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이며, 아시아문화중심의 도시, 첨단산업의 도시, 여성친화의 도시이자, 건강의 도시이다.

그러나 광주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고, 인권폭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문화가정들이 광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족 같은 이해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류 외국인인 140만 명, 결혼이민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섰으며, 결혼 10년 중 1건이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사회이다. 세계화,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는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는 질문에 대해 유럽 18개국은 74%가 찬성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6.2%만이 찬성하였다. 국내 외국인이 늘어나고 해외여행 경험도 증가하면서 다른 인종,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날로 늘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공존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 지역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문화가정도 4376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기 좋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이들을 소중한 이웃으로, 가족으로 여기어 이해하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무분별 소액결제 예방교육 필요하다

요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게임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편리함과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친구들과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유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수익창출을 위해 많은 아이টে를 판매하고 있다. 경쟁시 스템으로 좀 더 좋은 기록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아이টে를 핸드폰 소액결제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액결제다. 한순간 자격력을 잃어 다액의 소액결제를 하게 되고 추후, 요금이 나왔을 경우 부모에게 혼이 나는 것이 두렵거나, 혼이 난 후 반박심에 가칠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아직 판단력이 흐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무분별하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소액결제 부가서비스를 자동으로 활성화해 개통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무분

별한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들께서는 각 통신사 114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부가서비스 해지가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소액결제가 있을시 반드시 해당 결제 업체 고객센터 문의 및 상담으로 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다. 혹시 자녀가 실수로 다액의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혼만 낼 것이 아니라 소액결제에 대하여 정확한 사용법을 교육시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社說

늘어나는 치매환자 관리시스템 시급하다

광주지역 노인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의 고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치매환자를 돌볼 전문요양시설과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는 1만2400명으로 첫 번째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가 11만8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15%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게다가 치매노인 10명 중 4명은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치매환자 급증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치매환자 관리대책은 결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치매노인 1만2400명 중 진료료를 받은 환자는 56%로 추정되지만 44%는 치료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치매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서울대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고, 산하에 강원대·충남대·전북대·경북대 병원 등 4개 권역치매센터를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는 전남대병원 등 23개 지역 거점병원만 선정됐을 뿐 권역치매센터는 없다. 치매노인 수가 1만 명도 안 되는 강원, 전북 등이 권역치매센터로 지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의료비 및 부대비가 늘어나 경증일 때보다 9배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유지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지름길이다.

광주 남구청 미술품 구입 “혈세 퍼주기냐”

광주 남구청이 오는 3월 신청사에 내걸릴 미술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 투성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 남구청 미술품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남구청의 주먹구구식 작품 추천 과정과 가격 책정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면서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이다.

남구청이 광주시에 심사를 의뢰한 작품은 69점으로, 전체 구입가만 5억1827만여 원에 달한다. 당초 작품 공모는 국내외에서 독특한 창작세계를 확보하고 있는 광주지역 작가가 대상이 되면서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미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작품 선정 기준이 공개 모집 없이 특정한 중심의 추천위원을 통해 작품 선정이 이뤄지면서 투명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가.

또, 남구청이 올린 추천 목록에는 현재 남구청이 운영 중인 미술관인 남구청 미술품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A씨 등 4명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고 한 달 이상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의위원의 경우 출품을 제한한다’는 남구청의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남구청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작품 가격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책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지역 화랑계에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작품들이 적지 않아 작가 간의 경력·시장성 등을 감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난다. 결과적으로, 남구청의 졸속행정이 난맥상을 낳고 의혹과 불신을 부른 것이다.

남구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계자 문책은 물론 지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광주시도 심의 위원회의 재심사가 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직접 조사를 착수해 작품 선정 및 가격 책정 등 사건 진모를 가려내야 한다. 5억 원이 넘는 주민들의 혈세가 그렇게 만만하

無 等 鼓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그 누구가 뭐래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슬픔을 내가 대신 하지요/ (중략) / 많은 것은 없어도 이 마음은 언제나/ 내 이웃의 괴로움 내가 대신 하지요.’

가수 옥희가 불렀던 추억의 인기가요 ‘이웃 사촌’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이 훨씬 가깝고 소통하는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



웃 사촌이라는 추억의 명곡이 이제는 듣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설 연휴기간 중 부모 집을 찾은 30대 형제가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휘두른 흥기에 찢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세대주택 1

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뒷집에 불을 질러 가족 6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사소한 ‘층간소음’이 문제였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감정을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비화된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광주에서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민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도 올 해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실제 미국은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3회)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시

키는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한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원)를 물린다.

유럽처럼 소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금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적 장치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 친척보다 좋은 ‘이웃 사촌’의 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천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